

경쾌하게 미술을 싣고 달리는 버스

이병희(미술평론가)

언제나 관광객들과 수많은 소비자들, 구경꾼들로 넘쳐나는 스펙타클의 장소, 인사동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장소는 갤러리 상 157 이다. 이 건물에는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관광 상품을 파는 전형적인 인사동의 백화점식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데, 이 곳 2 층의 한 켠에는 <더 버스>라는 명품샵이나 디자이너샵처럼 보이는 한 코너가 있다.

그런데 이곳의 물품들은 가만 보면, 뭔가 이상하다. 착용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보석들, 제작자가 불분명한 기성상품들, 심지어 상품은 없고 가격표만 있기도 하다. <더 버스>는 현대 한국 미술가들의 새로운 개념의 프로덕션인 셈이다. 여기에 참여한 세 작가들은 홍장오, 윤정원, 유영호이다. 이 프로젝트의 아트 디렉터 유영호는 "전통적 방식의 작가=생산자, 갤러리=유통, 수집가=구매자의 등식에서 벗어나 작가=생산자=유통=이윤의 분배자라는 등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담론화 하고 실천해 보고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작가들의 이러한 프로젝트이자 미술 사업은 여러모로 현대의 미술을 둘러싼 자본의 흐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무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 <더 버스>는 당연시되던 기존의 작가, 갤러리의 기능과 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객의 자리 도 새롭게 재조명된다. 프로젝트가 던지는 당혹스러운 물음에 응답해야 하는 자는 바로 관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찰은 같은 건물 6 층의 <smileplanet by yoon jeong won>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공간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 bar 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공간 곳곳에는 작가가 디자인한 의상이나 헬멧, 장신구들, 빈티지 패션, 신발들, 바비인형 등이 다양하게 진열되어있다. 그리고 한 켠에는 작가의 작업실이자 공방이 위치해있다. 멀티스페이스로서의 이 공간은 작업실, 샵 shop, 바 bar 로 구성되어 있으며 1 년간 유지된다. 이곳에서 관객이자 소비자인 우리들은 작품(생산품)을 보다 직접적이고 캐주얼하고 경쾌하게 만나게 된다.

아무리 현대의 미술이 고가에 판매되고, 많은 자본이 미술계로 흘러들며, 갖가지 비리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개방되고 폭로되는 현재에도 갤러리라는 공간은 여전히 어느 정도 삭막하고 부자연스럽다. 그렇지만 <smileplanet by yoon jeongwon>과 같이 작가와 관객,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문화행위자이자 향유행위자로서 거듭나게 한다면, 전반적인 미술에 대한 인식이 보다 경쾌하고 유쾌하게 다가오게 될 지도 모른다. 그리고 현대의 시스템 속에서 미술, 미술가, 그리고 관객이자 향유자의 새로운 직접적인 만남은 바로 갤러리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갤러리라는 장소는 더 이상

미술가와 관객의 만남을 특정하게 규제하는 유통의 장이기를 그치고 그들의 보다 솔직한 조우를 가능케 할 것이다.

1. <smileplanet by 윤정원>, 갤러리 상 157 (6 층), 2007 년 6 월 13 일부터 2008 년 6 월 12 일까지
2. <the Bus>, 갤러리 상 157 (2 층), 2007 년 7 월 11 일부터 10 월 11 일까지, 02-737-5025